2022 OPEN! 17.
영적인 문제를 혼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위로부터의 능력을 구함)

[마가복음 9:28-29] 28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1. 어떤 일이든 그에 맞는 것으로 해결이 되어야 한다.

* **자물쇠와 열쇠의 원리** - 맞는 열쇠가 있어야 자물쇠가 열리는 것이다. 금으로 만든 열쇠, 다이아몬드로 만든 열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자물쇠를 열려면 그에 합당한 열쇠가 있어야만 자물쇠가 열리게 된다. 자물쇠를 문제로 본다면 모든 문제에는 그에 맞는 합당한 열쇠가 있다. 합당한 열쇠를 구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자. 육신의 힘으로 해결되는 일이 있다. 지성과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필요한 일이 있다. (예술가에게 감정은 중요하다. 일이 풀리는 열쇠이다. 학자에게 이성과 논리적 사고는 중요하다). 그러나 육신과 혼의 영역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다. 무슨 법칙인가?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영역으로만 풀릴 수 있다는 것이다. (혼과 육의 힘으로 할 수 없다)

2. 영적으로만 해결되는 일이 있다.
[고린도전서 2:13-14] 13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14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은 신령한 사람에 대한 설명이다. 말씀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13,14절이다.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영역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14절의 말씀처럼 자연에 속한 사람이 절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영적인 영역에 대한 언급이다. 이에 대한 예가 마가복음 9장에 기록된 귀신 들린 아이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다. 제자들이 28절에 묻는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힘으로만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설명이시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3. 모든 일이 막힐 때
문제는 풀리기 위해 존재한다. 이 세상이 풀지 못하는 문제는 없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사람에게 주셨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땅 위에 두셨고 복을 주셨다. 그리고 땅을 번성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주셨다.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 나에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는가? 내 힘과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가? 영적인 법칙으로 볼 때, 내 힘의 막힘은 영적인 영역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사인이다.

* **하늘의 지혜** - 하늘의 지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아는 분별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막힘은 영적인 영역으로만 해결이 가능하다는 사인이다.

4. 문제의 본질
모든 문제는 결국 본질이 해결되어야 풀리는 것이다. 성도는 표면적인 문제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 즉 본질을 아는 사람들이다. 그 본질이 바로 영적인 영역이다. 혼과 육의 능력으로 절대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문제의 본질을 알 수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며, 우리들이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내 삶의 문제의 본질을 아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내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문제의 본질이 영적인 영역에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다. 교회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인 것이다.

[마태복음 16:19]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성도와 교회는 하늘과 땅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땅의 문제의 해결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찾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교회는 부수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곳이 아니고,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곳이다.

5. 땅의 문제의 해결
[창세기 3:17-19] 17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9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을 빼앗겼다. **오늘날 인간의 문제는 '소산, 공급'의 문제이다. 어떻게 하면 내가 경작하는 영역이 소산을 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그렇다면 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소산'에 대한 문제이다. '소산과 소출'은 공급을 말한다. 공급이 없는 생명체는 죽게 된다. 가정, 직장, 교회 무슨 소산을 내고 있는가? 땅이 저주를 받은 원인은 '영적인 문제'이다. 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원인은 인간의 범죄 가운데 있다. 땅은 공급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땅을 다스리고 번성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셨다.

그런데 죄로 범죄한 인간을 통해 땅은 '저주'를 받게 되었다. 땅이 소산을 내지 못하고 저주를 받게 된 원인은, 땅 자체가 아니라 범죄한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주받고 타락한 땅을 회복하기 위해 본질의 땅 '아담'이 되어 오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하늘 문을 여는 십자가'라는 게이트를 통해 해결하신 것이다. 그 십자가만이 **사탄의 견고한 진, 공중에서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의 능력을 파할 수 있는 힘이다.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하다.

6. 엘리야 때
엘리야 때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 원인은 비가 오지 않기 때문이다. '비'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비는 자연 현상이지만,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 하늘의 뜻대로 기도 - 엘리야
[야고보서 5:17-18] 17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삼 년 육 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18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신명기 11:16-17] 16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하므로**
17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시므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열왕기상 8:35-36] 35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 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36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7. 갈멜산의 전투
이제 **본질적인 해결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이다. 답은 '불'을 구하는 것**이다.

[열왕기상 18:24]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열왕기상 18:36-40] 36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37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38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39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40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 36절 - 엘리야의 불의 본질은, 모든 백성이 진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다.
* 37절 - **불의 본질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불이 아니다. (노력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로 위에서 내리는 불**이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불이 있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이 불이 필요하다. 이제 진짜 싸움이다. 기도하자. 진짜 불을 받자. 다른 답을 구하지 마라. '엘리야의 불'을 받으라.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오순절의 불'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는 확장이 된다. 오늘 조이풀 교회와 온 성도가 위로부터오는 능력의 불을 받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모든 것을 태워내는 소멸하게 하는 성령의 불을 받자.

8. 불은 갈멜산으로 가야 받는다. 현장으로, 필드로 나아가라.